

민선6기 광주시 미래 먹거리 최대 현안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9일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며 "광주에 완성정기차 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인 홍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광주형 일자리와 광주의 친환경차산업 육성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성공기원 정책협의회'에 초청인사로 참석,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시작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을 주제

## '국정과제' 광주형 일자리 급물살 타나

한국·민노총 등 정책협의회 열고 성공방안 모색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국이 가야 할 길"  
"인센티브 전방위 지원...광주 전기차 메카 될 것"

로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흐름 속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며 "문

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토록 국회 차원에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100년이 넘는 미국·유럽의 자동차 역사를 뛰어넘기 위해 전기

자동차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광주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친환경 경자동차 사업을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만큼 향후 전기차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가 위대한 결단을 내려 광주의 50년, 100년의 비전을 만드는데 함께 할 것이 바로 광주의 강점이며, 이 점을 정부가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노·사·민·정 연대만

제대로 유지된다면 국회 차원의 지원은 물론 중앙정부 예산 확보,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 성사시키겠다"면서 "특히 인센티브 등 혜택을 줘서라도 완성차 업체가 광주로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전기차 완성에서는 뒤쳐져 있지만, 전장부품을 포함한 부품산업에서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광주에 완성차 라인이 들어오면 세계

적 경쟁력을 갖춘 부품회사들도 대거 들어와 활성화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지역 노동계, 경영자협회, 지역대학교와 사회단체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홍 위원장께서 광주형 일자리에 치열한 열정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동계·경제계·시민사회 등이 다음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지를 함께 고민해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시장은 홍 위원장을 광주형 일자리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기철 기자

## '달빛내륙철도' 건설 영호남 머리 맞댄다

9개 지자체, 대구서 실무협의회...정부 관심·협조 촉구

문재인 정부가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채택한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건설을 위해 영호남 지자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댔다.

광주·대구시를 포함해 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합천·고령 등 9개 지자체 실무자들은 19일 오전 11시 대구 시청에서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현안사항 논의와 함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치단체 실무자들은 실무협의회 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만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는데 지역적·정치적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대구를 잇는 191km 고속화철도(200-250km/h)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약 5조원 이상으로 전액 국비로 충당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문제는 예산확보와 정부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구체적 명시가 없는 데다 막대한 건설비 대비, 경제성·효율성 등이 부족할 경우 사

업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역정치권 등과 공조를 통해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용역비 확보는 첫 단추를 꿴 것으로 정부가 사업을 적극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했지만 이번이 좌초됐고, 지난해 6월 결정된 제3차 국토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도 우선순위에 못들어서 밀려나

고 있다. 이 사업은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새 정부 국민통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송정역-서대구역간 191.6km로 6개 시·도, 17개 시·군을 경유해 219만가구 577만명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양 지자체는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광주와 대구가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연결돼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의 획기적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은 물론 광역관광벨트화도 가능해져 지역발전에도 새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철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19일 오전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병욱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관련기사 9면> /김태규 기자

##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지 이달 중 발굴

5·18재단 "조사방법·일정 확정 후 23일 공개"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당한 장소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발굴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옛 교도소 발굴준비 현장조사를 마치고 암매장 제보자와 5·18당시 3공수여단 소속 부대원이 작

성한 약도에 표시된 구역이 일치해 발굴 범위를 특정, 옛 교도소 현장조사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재단은 구체적인 발굴 조사 방법과 일정 등을 논의해 이달 중으로 발굴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암매장 발굴장소는 5·18 당시 교도소

내 농장으로 사용된 땅이었지만 현재 아스팔트로 덮여 울타리가 세워진 상태다. 재단은 구체적인 발굴조사 방법과 일정 등을 확정된 뒤,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재단측은 발굴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발굴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발굴작업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18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법무

부로부터 시설물 관리대장을 받아 교도소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검토해 발굴작업에 참고하겠다"며 "37년 만에 행방불명자들에게 대한 발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태양광 광풍 전남 땅값 '들썩' ▶7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HOBAN 호반건설

## 광주의 랜드마크를 바꾸다

동구 新주거타운의 중심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광주역, 지하철 1호선 등  
사통팔달 교통환경

롯데백화점, 대형마트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

단지 인접 초·중·고교로  
우수한 교육환경

JUNGHEUNG 중흥건설

## 광주 최대 2,336세대

호반과 중흥이 함께 짓다

10월 26일 OPEN 예정

건본주택 광주 서구 쌍촌동 956-7

계림 8구역

## 광주 그랜드센트럴

GRAND CENTRAL

광주 그랜드센트럴 www.grandcentral.co.kr

총 2,336세대 중 일반공급 1,739세대 59㎡A·B·C, 75㎡A·B·C, 84㎡A·B·C, 119㎡

시흥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흥 호반건설 중흥건설

372-2336